

필름의 2중포장에 의한 신선식품의 최적 공간 설계

Design of the Optimum Space for Perishable Foods by the Double Film Package

花 市 岳 / 후타무라화학(주) 필름사업부 개발팀 계장(포장박사)

1. 서론

식품의 직접포장에 많이 사용되는 플라스틱 필름은 재질이 얇으면서 가스 차단성이나 배리어성이 높은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다.

채소나 과일로 대표되는 신선식품은 수분을 많이 포함해 증산하기 쉽기 때문에 필름으로 만든 단순한 배리어포장에서는(특히 냉장보관 시에) 내면에 결로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 결과 부패나 이취의 증가, 나아가 외관의 악 화라는 현상이 발생한다([사진 1]).

물론 수분을 과도하게 증발시키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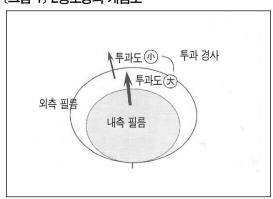
이번에 건조 방지와 결로라는 상반하는 현상에 관해 투과성이 다른 필름의 조합으로 개선할 수 있는가를 검토한 결과, 2장의 필름으로 수증기투 과도에 어느 정도의 기울기(傾斜)를 만들면 결로 하기 어려운 최적의 환경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그림 1〕).

여기에서는 건조나 메마름을 방지하면서 파우 치 내면의 끈적거림을 억제할 수 있는 최적화 포 장에 관해 잎새버섯을 예로 해서 보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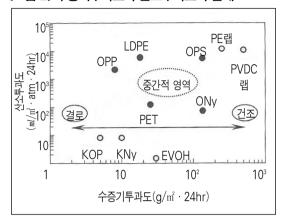
[사진 1] 냉장보관 시 결로의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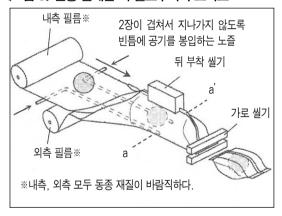
[그림 1] 2중포장의 개념도



[그림 2] 수증기투과도와 산소투과도의 관계



[그림 3] 전용 설계한 역 필로우기의 모식도



1. 각 소재별 투과도

이번에 주목한 것은 소재의 수증기투과도이다. 수증기투과도가 크면 결로가 생기기 어렵게 되지 만, 내용물의 건조는 막을 수 없다.

반대로 수증기투과도가 작으면 건조는 막아도 결로가 많이 생기게 되버린다.

경험적으로 중간적인 소재((그림 2))가 바람직 하다고 생각한다. 이것들을 기본으로 검토를 했다.

[그림 4] 뒤 부착 씰 시의 단면도(a~a')



[표 1] 1겹 포장에 의한 프리테스트 결과 (g/m² · 24hr)

재질	수증기투과도	건조 방지	결로평가	
OPP	5.3	0	X	
방담 OPP	9.2	0	0	
통기성 OPP	24.3	Δ	0	
LDPE	18.0	0Δ	X	
PET	25.6	Δ	Δ	
ONy	134	X	0	
OPS 186		X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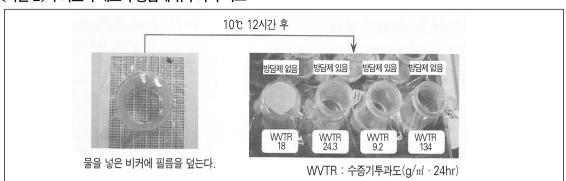
2. 포장방법

고안 초기에는 필름을 몇 겹으로 해야하는가에 대해 고민했다. 실용성을 고려해 2장의 필름을 조합해 간단히 포장할 수 있도록 [그림 3]과 같이 포장기를 설계했다.

동시에 급격한 온도 변화를 완화하거나 완충효 과도 만들 수 있도록 외측과 내측의 공간을 크게 만들기 위해 2장의 빈 틈에 공기를 봉입하는 노 즐을 설치한 후 불어넣는 타이밍도 함께 연구했 다((그림 4)).



[사진 2] 투과도의 대소와 방담제 유무와의 비교



[표 2] 2중 포장에 의한 테스트 결과

(-8 -8 -12	-11					(9//
No	외측 필름	내측 필름	외관 상의	결로	결로수	건조의	투과 경사
No.	WVTR	WVTR	WVTR	평가	중량	유무	(내+외)
1	5.3	24.3	4.35	В	С	무	4.58
2	6.0	24.3	4.81	Α	В	무	4.05
3	6.8	24.3	5.31	Α	А	무	3.57
4	7.9	24.3	5.96	В	А	무	3.08
5	9.2	24.3	6.67	В	А	무	2.64
6	5.3	9.2	3.36	BC	С	무	1.74
7	6.0	9.2	3.63	С	С	무	1.53
8	6.8	9.2	3.91	С	С	무	1.35
9	7.9	9.2	4.25	С	В	무	1.16
10	5.3	5.3	2.65	E	E	무	1.00
11	6.8	6.8	3.40	E	Е	무	1.00
12	9.2	9.2	4.60	D	D	무	1.00
13	24.3	24.3	12.15	В	С	유	1.00
14	24.3	6.8	5.31	E	E	무	0.28
15	24.3	9.2	6.67	D	D	무	0.38

「결로 평가」 10℃ 하에서 15일간 냉장보존한 후, 온도 23℃, 습도 50%RH 하에서 1시간 방치하고 내측 필름의 결로상황을 다음 기준으 로 평가했다.

A…거의 결로가 보이지 않는다. B…아주 약간 결로가 보인다. C…곳곳에 결로가 보인다. D…전면에 결로가 보인다. E…결로에 의해 실용 상 문제가 있다.

「결로수중랑」10℃ 하에서 15일간 냉장보존한 후, 온도 23℃, 습도 50%RH 하에서 10시간 방치하고 파우치 속에 결로한 물의 중랑을 측정해 다음 기준으로 평가했다.

A···0.25g 이하, B···0.25~0.30g, C···0.30~0.35g, D···0.35~0.45g, E···0.45g 이상

기기 쉬운 잎새버섯을 선택했다. 결과를 알기 쉽 0.95~1.00)으로 통일해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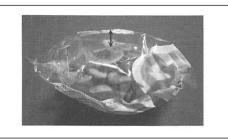
또한 피포장물로는 수분량이 많아서 결로가 생 도록 중량 100g(함수율 92.2%, 수분활성값

WVTR 단위: (g/m² · 24hr)

[사진 3] No.3의 결과



[사진 4] 증대한 에어층(No.3)



3. 필름의 선정

내측용 필름과 외측용 필름의 적성을 판단 해야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1겹으로 비교했 다([표 1]).

그 결과, 외측 필름의 필요 요건인 건조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은 $10g/m^2 \cdot 24hr$ 이하의 필름이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g/m² · 24hr 전후에서도 다소 건조 방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내외측의 투과 기울기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10g/m² · 24hr 이상의 필름은 외측 필름에 대한 후보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투과도가 높아도 방담(防曇)·방적(防

滴)제가 없으면 효과가 반감하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사진 2]에 방담제의 유무에 따른 차이를 나타냈다.

[사진 2]와 같이 당초 기대하고 있던 수증기투 과도 $18g/m^2 \cdot 24hr$ 의 LDPE는 결로를 억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완전 하얀 상태). 이것은 방담제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이다.

9.2g/m² · 24hr의 필름도 방담제가 들어가 있으면 어느 정도 결로를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반대로 ONy(WVTR 134g/m² · 24hr)와 같이 투과도가 높아도 방담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물방울이 늘어나는 현상도 나타났다.

시험을 한 필름 중에는 방담제에 통기성을 더한 24.3g/m²·24hr의 통기성 OPP가 가장 뛰어났다.

결론적으로 범용성도 있고 방담성도 뛰어난 9.2~24.3g/m²·24hr의 방담 OPP필름을 내측 필름으로 결정했다.

4. 시험 결과

앞서 소개한 필름을 사용해 여러 조합을 만든 결과를 [표 2]에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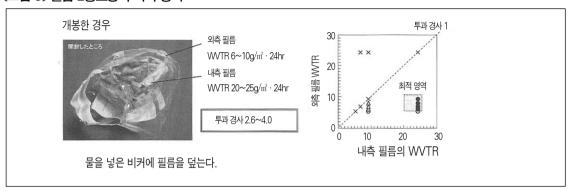
No.1~9는 콘셉트에 따라 내측 필름의 투과를 높게 한 구성이다. No.10~13은 외측과 내측 모 두 같은 필름을 사용해 투과 경사 1의 구성으로 했다.

또한 콘셉트가 정확한지를 검증하기 때문에 필름의 안팎을 반대로 한 No.14, 15의 구성도 검토했다.

결과는 No.2~5가 매우 좋다(베스트 모드는 [사진 3]의 No.3), 건조도 결로도 모두 나타나지



[그림 5] 필름 2중포장의 최적 영역



않았다. 하지만 투과 경사에 의해 에어층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었다([사진 4]).

5. 정리

이번 결과로 잎새버섯(Aw 0.95~1.00)에는 투과 경사 2.6~4배가 최적이라는 결론이 나왔 다([그림 5]).

또한 이 투과 경사 범위에서는 수증기의 완 만한 이동이 일어나거나 에어층이 강화(증대) 된다.

내용물 자체는 결로로 부패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모양도 망가지기 쉽기 때문에 이 포장 으로 결로에 의한 부패나 이취를 모두 없앨 수 있다.

또한 트레이를 사용하지 않아 틀이 망가지는 것을 줄일 수 있어서 외관이 좋은 최적의 포장을 만들 수 있다.

6. 마치며

이번 결과는 내용물의 각각 다른 수분활성값을

조합해 최적의 영역으로 이동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는 냉장 수송 시 발생하는 결로로 고민 하는 물품, 예컨대 반찬류나 슈크림, 한천 배지 등 수분을 많이 포함한 제품으로 응용해나갈 계 획이다. 🔊

기술원고를 모잡합니다.

포장과 관련된 신기술을 발표할 업체와 개인은 '월간 포장계' 편집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실: (02)2026-8655 E-mail: kopac@chollian.net